

<http://dx.doi.org/10.17703/JCCT.2022.8.1.85>

JCCT 2022-1-10

위계에 의한 군 성폭력의 문제점 -언론 기사 내용을 중심으로-

The Problem of Military Sexual Violence by Hierarchy: Focusing on the Contents of Media Articles

김선녀*

Seon-Nyeo Kim*

요약 본 연구는 군 성폭력이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사각지대로 존재하는 요인과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2010년 1월부터 2021년 6월15일까지 인터넷 뉴스에서 다룬 군 성폭력 사건 기사를 중심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구조적으로 불평등한 권력관계,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군 조직문화, 성폭력의 소극적 대처에 불신받는 군 내부 대응시스템, 가해자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와 관용적 처벌이 국방부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로 존재하는 요인들로 나타났다. 그 기저에는 징병제로 인한 보상심리와 가부장제의 부정적 영향이 국민정서에 녹아 있어 분단의 위기감과 더불어 군대에 지나치게 허용적인 태도가 변화를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결과에 따른 개선 방안으로는 민간 중심의 사법기관 신설, 강력한 가해자 처벌, 제한적 연금지급과 더불어 상하관계가 명확한 군 문화에서 '계급 강등'과 같은 명예적 처벌도 수반될 필요가 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군 성폭력은 대부분 분 위계에 의해 나타나며 성폭력의 주된 원인 또한 불평등한 권력관계임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주요어 : 군 성폭력, 사각지대, 군 조직문화, 징병제

Abstract In order to identify the factors and problems in which military sexual violence is a continuous and repeated blind spot, this study conducted a content analysis focusing on articles of military sexual violence incidents covered in Internet news from January 2010 to June 15, 2021. carried out. As a result of the study, structurally unequal power relations, authoritarian and closed military organizational culture, internal military response system that is distrustful of passive responses to sexual violence, and enveloping family-friendly investigations and tolerant punishment of perpetrators are blind spots despite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s efforts to improve. factors that exist. Underlying this, the compensatory spirit caused by the conscription system and the negative effects of the patriarchal system are embodied in the national sentiment, suggesting that the sense of crisis of division and an overly permissive attitude toward the military act as a factor that slows change. As an improvement plan according to the results, it is necessary to entail the establishment of a civilian-centered judicial institution, strong punishment of perpetrators, and limited pension payment, as well as honorable punishment such as 'class demotion' in the military culture with a clear hierarchical relationship. Taken together, we can see that most military sexual violence is caused by a hierarchy, and it strongly suggests that the main cause of sexual violence is unequal power relations.

Key words : Military Sexual Violence, Blind Spots, Military Organizational Culture, Conscription System

*정회원,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제1저자)
접수일: 2021년 12월 13일, 수정완료일: 2021년 12월 29일
게재확정일: 2022년 1월 1일

Received: December 13, 2021 / Revised: December 29, 2021
Accepted: January 1, 2022
*Corresponding Author: snkim@honam.ac.k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Honam University, Korea

I. 서론

최근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연일 언론에 이슈가 되면서 국방부를 비롯한 국민적 공분이 높아지는 사회현상이 되었다. 성폭력은 타인에게 육체적 손상과 정신적, 심리적인 압박을 주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이다[1]. 성폭력으로 인한 인권유린은 조직 구성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군의 기강을 위협하여 업무수행에 방해가 되는 요인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만 한다.

육군 법무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 기소된 총 2,406건의 형사사건 중 성범죄(군 형법범추행, 형법 위반, 성매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는 346건이 기소되었다. 이는 전체의 약 14.3%를 차지하며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 군 성폭력의 가장 큰 문제는 군 내 여성 대상 성폭력 가해자가 2018년 기준으로 장교(50%) > 부사관(36%) > 병(7%) 순이고, 피해자는 78%가 초급간부(중·하사 54%, 중·소위 24%)라는 사실로 볼 때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 대부분이다[2].

이렇듯 군대 내 성폭력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국방부는 성폭력 근절에 대한 제도적 보안과 대안을 짜내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조직에 비해 다소 소극적이었던 군대조직의 양상은 잘못된 관행적 조직문화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으며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과 문제점 파악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대두되고 있다.

이제 한국의 군 조직이 왜 성폭력 사각지대로 존재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 물론 미국을 포함하여 다른 국가들에서도 군 성폭력의 고민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만의 경험적 역사성이 더해지는데 그것은 징병제와 가부장제 문화의 부정적 영향에 기인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분단국가라는 잠재적 위기의식 하에 수십 년간 군사독재를 겪으면서 남성에게 국가를 방위할 의무를 강제로 부여하는 징병제를 통해 군(軍)은 남성중심 조직의 특수성으로 정착되어왔다. 그에 반해 여군은 군대에 ‘자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보다 군인의 위치에서 자신의 능력 발휘를 기대하고 입대한다. 그러나 실제 여군을 대하는 방식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군은 남성중심적 문화를 고수하는 반면 여군은

군대의 꽃이 되기를 요구받는다. 이러한 빼돌어진 성인지 감수성이 누적되면서 결국 성폭력의 일상화로 나타나게 되는데 권위주의 개발 시대를 거치며 고착화된 우리 사회의 불평등한 성별 권력의 폐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현상이다.

지난 2018년에 우리 사회에 큰 획을 만들었던 ‘Me Too 운동’의 확산은 그간 경험하지 못한 변화를 이루어냄으로써 양성평등을 재인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남성들로 구성된 가부장 지향사회인 군대는 여전히 철옹성이다. 여군은 남성의 영역이라고 여겨지는 분야에서 자신의 ‘능력’을 펼치며 활동하는 것 자체만으로 이미 전통적인 젠더 규범에 교란을 일으키는 존재이며, 여군의 규모 확장이나 보직의 확대는 군대 내부의 자생적인 변화라기보다는 시민사회의 젠더 인식이 성장하면서 군대의 운영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군인의 사회화’라는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3].

이제 한국 군대는 변화해야 한다. 오랫동안 군 문화로 당연시했던 가부장적 사고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 가부장제의 가장 큰 악영향은 과거 지향적이고, 남성중심적이며 수직적 사고방식이다. 군대에서 여군은 꽃이 아니며 성적 욕구 대상은 더욱더 아니다. 여군은 현장을 함께 뛰는 삶의 동료이다. 더욱이 여군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그간 군 성폭력의 실태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대책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군 성폭력 예방정책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사회현상에 대해 대중의 태도와 가치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수단으로 언론을 꼽을 수 있다.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은 부정적인 사회의 고정관념을 강화하거나, 긍정적인 사회적 인식 및 태도 변화를 촉진하는 기능을 한다[4, 5]. 즉 언론은 대중의 관심을 자극하여 사회적 담론을 형성함으로써 대중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이며, 그 시대의 국민적 정서와 욕구를 가장 잘 반영하는 기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위계에 의한 군 성폭력이 사각지대로 존재하는 요인과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2010년 1월부터 2021년 6월15일까지 인터넷 뉴스에서 다룬 군 성폭력 사건 기사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대안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군 성폭력에 대한 선행연구

군 성폭력 실태에 관한 연구에서는 성폭력 예방 교육이 법적으로 강제성을 띠며 실시되고 있어서 피 교육생들의 준비도와 자발성이 낮으며, 그로 인해 교육 효과도 감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남성은 가해자, 여성은 피해자라는 구도로부터 시작하는 부정적 정서가 남성의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고 교육의 효과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6].

군대는 남군(男軍) 위주 복무에서 비롯된 성 문제에 대한 그릇된 인식 잔존 및 문제 현상이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사고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 대책의 미흡으로 인하여 피해자 자신도 수치심·보복 등을 우려해 문제해결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경향도 있다고 우려한다[7].

또 다른 연구에서는 군 성폭력에 대해 국방부 및 각 군은 성폭력 예방 교육 강화, 전문상담관 제도 시행, 가해자 처벌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성범죄를 예방하는 문화를 조성해 왔으나 성범죄 발생 건수는 오히려 증가하였으며, 그 증가율이 여러 범죄유형 중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제시한다[8].

미군도 성폭력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5년에 독립적인 국방부 장관 산하의 성폭행 대응기관인 SAPRO(Sexual Assault Prevention and Response Office)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SAPRO가 성범죄 담당 상설기구로서 창설된 이후로는 전군의 성폭력을 통합하여 다룰 수 있게 되었다[9].

한편 군 문화의 고질적 폐쇄성을 다룬 연구도 있었는데, 군대 조직문화의 특성으로 집단주의, 위계적 권위주의, 전투적 사고, 폐쇄주의를 지적하였다. 이러한 조직의 특성으로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이 묵인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며[10], 군대가 수평적 의사소통을 통해 팀워크를 다지고 창의를 통해 변화혁신 하려면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침투한 가부장제를 털어내야 한다고 주장한다[11]. 또한 민간에서도 성폭력 범죄의 과소신고(underreport)가 문제로 지적되는데, 하물며 위계질서가 강한 군대조직에서 피해사실을 드러내기는 보다 더 어려운 문제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12].

그리고 군대 내 성폭력 피해 병사들의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도 이어졌는데, 성폭력을 겪은 전역자 1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한 결과 성폭력을 경험한 군부대 내의 환경, 성폭력의 양상, 성폭력 이후의 경험, 피해회복

을 위한 노력과 적응과정까지 총 4개의 영역이 도출되었다[13].

III. 연구방법

1. 문헌연구

언론에 보도된 군 성폭력 현황을 파악하고자 2010년 1월부터 2021년 6월15일까지 인터넷 뉴스에서 다룬 군 성폭력 사건 기사를 수집하였다.

일간지를 비롯한 전문지 방송통신 등 42개의 언론사를 선택하여 키워드 “군 성폭력”으로 총 50건을 검색하였다. 검색한 기사는 크게 4개의 영역으로 범주화하였는데 불평등한 권력관계, 폐쇄적인 조직문화, 소극적 대응시스템, 관용적 처벌로 나타났다.

2. 군 성폭력에 대한 기사 내용분석

표 1에 보인 바와 같이 기사 내용분석에서 주목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해자 대부분이 불평등한 권력관계로 인해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피해 대상은 여군에 이어 동성 하급자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폐쇄적인 조직문화 특성으로 저항의 한계가 있었다. 셋째, 피해 여성의 경우 소극적 대응시스템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넷째, 가해자 처벌이 대부분 솥방망이인 관용적 처벌에 머물고 있었다.

IV. 연구결과

1. 구조적으로 불평등한 권력관계

군인들은 국가 유사시 생명을 걸고 언제든 전쟁에 나가 싸워야 하는 조직에 속해있기 때문에 상하 위계서열이 명확하고 엄격하다. 또한 군 조직은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다’[14] 와 같은 국방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와 같이 군 조직은 일반사회 조직과 다르게 구성되고 운용되며 계급과 직책, 권위를 바탕으로 책임을 지는 위계적 전투 집단으로 규정되었다[15].

군 인권센터가 입수한 국방부의 ‘2009~2010 성범죄 처벌현황’에 따르면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성폭행 사건을 ‘성 군기 위반 사고’라 칭하는데, 이는 강제 성추행을 ‘사건’이 아닌 ‘사고’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16].

표 1. 언론에 보도된 성폭력 기사 내용 (2010 ~ 2021.06)

Table 1. Contents of sexual assault articles reported in the media(2010~2021.06)

범주	기사 제목	키워드	신문사
불평등한 권력관계	군대 성범죄 실태 충격보고서	군대 성범죄실태	일요신문 (2011.8.01.)
	성범죄 은폐가 특수성 때문이라는 군대 내 금수들	성범죄 은폐	투데이코리아 (2021.6.08.)
	군, '집단 성폭행 혐의' 현역장교2명 조사	집단 성폭행	한국세정신문 (2016.10.19.)
	2017년 군인 성범죄 입건 1,000건 육박	군인 성범죄 입건	경기북부탐뉴스 (2018.10.09.)
	국방부, 軍성범죄 피해신고 접수해보니... 절반은 여군부사관	낮은 신고율	연합뉴스 (2018.5.08.)
	여군 성추행에 불법촬영까지... '군대내 성폭력' 끊이지 않는 이유는	불법 촬영	조선일보 (2021.6.02.)
	또 공군 성범죄... "숙소서 불법촬영하고 폴더명 여군이름으로"	불법 촬영	서울신문 (2021.6.02.)
	병사들은 성추행, 간부들은 성폭행... 이어지는 군내사건사고	간부들의 성폭행	아시아경제 (2020.9.02.)
	대통령 주치의 출신 군병원 의사도 성폭행 시도...	대통령 주치의 출신	문화일보 (2021.6.01.)
	군검찰, '탈북여성 성폭행' 정보사 간부2명 기소	탈북여성 성폭행	연합뉴스tv (2020.9.02.)
	군, 상관에 성폭행 피해추정 여장교 자살... 대령 긴급체포	여장교 자살	프레시안 (2017.5.25.)
	또 드러난 성범죄... 육군 대대장 성폭행 혐의 추가	드러난 성범죄	SBS뉴스 (2021.6.10.)
	샤워실서도 생활관서도 이어진 후임 성폭행... 해병대 장병들 징역형	해병대 성폭행	서울경제 (2021.2.23.)
	코로나에 육군 '외출' 막히자... 동성간 성범죄 49% ↑	동성간 성범죄	머니투데이 (2021.4.28.)
폐쇄적인 조직문화	폐쇄적인 군대 문화속 피해 커지는 군성범죄, 현명한 해결방법은?	폐쇄적 군대문화	비즈월드 (2020.10.16.)
	성폭력 가해자와 같은 배 태운 해군...따라온 건 '집단 괴롭힘'	왜곡된 군 문화	한겨레 (2021.6.08.)
	폐쇄적인 군문화가 낳은 '성범죄 논란'	폐쇄적 군 문화	금강일보 (2021.6.03.)
	"3년간 성범죄 군재판 군인 1279명"	바주기식 군 문화	강원도민일보 (2018.10.25.)
	8년새 여성 군인 3명 잃었지만...성폭력 신고율 32%뿐	신고 후 두려움	한겨레 (2021.6.03.)
	"여군 성폭행' 장교2명 무죄판결..."누가 군대 성폭력 신고하겠나	2차 가해 두려움	뉴스핌 (2018.11.19.)
	군 전역자 37.6% "군대 내 성폭행 알고 있다"	신고 후 두려움	들소리신문 (2013.10.28.)
	군대 내 성폭력에 밤이 무서운 신병들	학대받는 신병	시사저널 (2000.07.27.)
	여군들 "성폭력 신고하면 관심병사 찍히고, 단톡방에 신상피져"	2차 가해 두려움	한겨레 (2021.6.10.)
	여군 1만시대' 여전히 성범죄에 취약한 여군	폐쇄적 군대문화	노컷뉴스 (2017.11.04.)
소극적 대응시스템	"군대 내 성범죄, 군 사법체계 개혁하고 군대 문화 뜯어고쳐야"	사법체계 개혁	TBS뉴스 (2021.6.17.)
	최재성 "군 성범죄35% 증가...성 군기 확립"	군대문화 개혁	송파타임즈 (2018.10.22.)
	성폭행에 은폐의혹까지...군기 빠진 해병대?	성폭행 은폐	시사 IN (2010.8.04.)

	해군장교 성폭행 사건' 2심 무죄 논란...그날 무슨일이?	성폭행 은폐	뉴스스 (2020.11.21.)
	성범죄 응징하지 않는 군 조직문화가 문제의 온상	조직적 은폐	중앙일보 (2021.6.12)
	성폭행 여단장 '강간죄' 아닌 '간음죄'...빠주기 기소 의혹	기소 의혹	노컷뉴스 (2015.3.23.)
	무관용 원칙' 세우고도 단절되지 않는 군 성범죄	유명무실 무관용 원칙	경향신문 (2021.6.04.)
	법조계 "성범죄관련 軍 사법시스템 전면 개편해야"	사법시스템 개편	법률신문뉴스 (2021.6.10.)
	군 성폭력사건 '군사법원폐지'로 확대 "늦은감 있다"	성범죄자 도피처	오마이뉴스 (2021.6.04.)
	"하사가 불법촬영, 피해자 다수"공군 내 또다른 성폭행 폭로	공군 성폭행	뉴스1 (2021.6.02.)
	홍영표의원, 軍 디지털 성범죄에 너그럽다 지적	디지털 성범죄	전민일보 (2020.9.30.)
	군대 '동성 간 성범죄' 사화에 한번 꼴...국방부 대책은?	동성 간 성범죄	이코리아 (2015.9.15.)
관용적 처벌	대법, 군 성범죄 양형기준 손본다..."사회적 요구반영"	양형기준 정비	한국일보 (2021.6.08.)
	與 군성범죄TF회의의..."성범죄 엄중처벌 무관용" 제도정비추진	성범죄 무관용 추진	시사포커스 (2021.6.08.)
	'위계에 의한 성범죄' 빠진 군형법...'숨방망이' 처벌 여진	숨방망이 처벌	연합뉴스 (2021.6.04.)
	임태훈 "군 성범죄 반복...'숨방망이 처벌'군 재판 대신 민간에 넘겨야"	낮은 성 인지성	한국일보 (2021.6.03.)
	군(軍)내 성범죄 10%만 실행...숨방망이 처벌이 재발 불렀나	숨방망이 처벌	YTN (2021.6.02.)
	김진태 "군성범죄 숨방망이 처벌, 국민 신뢰 해친다"	숨방망이 처벌	프레시안 (2016.10.07.)
	군 성범죄는 꾸준히 증가하는데 반해, 군사법원은 숨방망이 처벌로 일관	관대한 처벌	내외뉴스통신 (2018.10.24.)
	반복되는 군 성폭행, 군사법원의 관대한 판결도 한 원인	관대한 판결	CNN21방송 (2014.10.10.)
	반복되는 군(軍) 성폭력...숨방망이 처벌이 문제 키워	숨방망이 처벌	뉴스스 (2021.6.15.)
	9개 부처 합동"디지털 성범죄, 뿌리 뽑는다"...양형기준 강화	양형기준 강화	UNN (2020.4.23.)
	"처벌 엄한 군(軍)형법"...성범죄에 왜 힘 못쓰나	처벌의 이중성	MBC NEWS (2021.6.02.)
	"상관이 성폭행"해군대위 자살..."군사법체계 민간이양" 여론고조	군사법체계 민간이양	GO발뉴스 (2017.5.26.)
	군, 여단장 여군 성폭행 관련 무더기 징계 검토 중	가벼운 처벌	BBS NEWS (2015.3.02.)
	군대 성범죄 끊임없이 늘어만 가는 이유는..."수사.기소.판결 軍독점적 구조때문	독점적 구조	파이낸셜뉴스 (2016.10.04.)

가해자는 모두 피해자의 상급자들로 '상명하복'의 수직적 구조의 군대 특성상 상급자가 지위를 이용하기 때문에 하급자가 반항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특히 최근에는 가해자인 병장이 전역하면서 후임에게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가해할 것을 명령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권력관계의 되물림 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동성 간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그간 관행처럼 이어져 왔던 폐쇄적인 군

문화 속에서 불평등한 수직관계가 더욱 강화되어 온 결과이다. 동성에 혐오는 모든 여성과 남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성차별주의의 무기로 규정하는데 남성의 여성화를 수치료 여기는 집단에서 동성애는 가장 치욕스러운 일로 여긴다[17]. 특히 군대의 남성 간 강간은 남성의 우월함이라는 영역 안에서 내부의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일어난다[18].

이를 종합해보면 모든 군 성폭력 유형에서 나타나는

것은 군 내부 직급에 따른 권력관계를 보여주며 성폭력의 주된 원인이 불평등한 권력관계임을 시사하고 있다.

2.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군 조직문화

사실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조직문화는 군대를 일사불란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중추 역할을 하였으며 반복된 학습과 훈련은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군 특유의 공동체로 강화시켜 왔다. 군 공동체 문화는 단결과 응집력, 동질감과 상호 의존감을 높임으로서 군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기여한다. 특히 군은 전투에 임하는 남성적 전사를 주요 관점에 놓고 강한 군인의 정체성을 내세워 남성의 육체적 우월성과 힘이 진정한 군인의 기준이 됨을 강조한다[19]. 반면 군은 여군과의 생물학적 차이를 강조하면서 여군을 조직 내부의 외부인으로 존재하는 사회적 고립감을 경험하게 한다[20]. 성별에 따른 차이는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이어져 남녀 역할에 구조화된 신념으로 고착화되며 이는 결국 성별에 근거하여 차별적이거나 편견적인 신념을 지지하게 되는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신념을 반영하게 된다[21, 22].

이와 같이 군 조직의 특성은 극단적인 위계 구조, 수직적인 의사소통, 상급자와 하급자의 보고 형태를 활용한 의사소통 등으로 설명되기도 하였다[23].

또한 군조직의 경직성, 군 조직의 관료주의 속성, 업무수행의 기계적인 측면, 전장에서의 공포극복을 위한 의식 강조, 명령에 대한 복종과 강제적인 방법 동원, 공동운명체적 연대성 강화 등으로 제시된 바 있다[24].

군 성범죄는 계급과 명령을 중시하는 군대조직의 폐쇄성으로 인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저항하기 어렵고 설사 피해 신고가 이루어졌다 해도 해당 사건을 부대 내에서 처리, 상급자와 동료들의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으며 피해자가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에도 사망 이후 조치 미흡 등 피해자의 인권이 방치되고 있다.

3. 소극적 대처에 불신받는 군 내부 대응시스템

일반적으로 성폭력을 당했을 때 신고하기란 쉽지 않다. 개인의 민감한 부분이 노출되고 2차 피해인 사회의 시선이 두렵기 때문인데 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란 더욱 어려운 입장이다. 이는 신고 시에 피해자와 신고를 받는 기관만 따로 분리되어

사건을 처리하기 힘든 구조이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소속된 부대의 간부는 신고 즉시 신고 사실을 전달받아 알게 되고, 같이 생활하는 병사들에게도 빈번하게 피해자의 신고 소식은 전해진다[25].

군 내부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피해자보호나 군인 인권 이외에도 부대의 단합, 군사력 등 양보할 수 없는 신념화된 가치들을 가진다. 이러한 명목으로 지금껏 군 성폭력은 일단 숨기고 인정하지 않는 문화도 있었다. 하지만 이보다 군 성폭력이 알려졌을 경우에 발생할 상급 부대의 감사나 부대 내 혼란의 가능성, 부대장을 향한 책임 추궁의 가능성,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온정주의나 의리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스스로 신고하기에는 너무나 큰 용기가 필요하다.

최근 언론 기사 내용을 보면 군사재판에는 같은 부대 상관들이 관할관이나 심판관 등의 이름으로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군법무관들이 군검사, 국선변호사가 되기 때문에 공정한 사건 처리가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일반법원에서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법원과 검찰에 소속되지 않은 변호사가 독립적으로 사건 당사자를 변호하지만, 이와 다르게 군에서는 조직의 특수성으로 인해 모든 것이 하나의 라인으로 연결되어 피해자보호를 위해 선임되는 국선변호사마저 군법무관이면 제대로 된 피해자 보호조치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군 조직은 고질적으로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되풀이 함으로써 지속되는 성폭력 사건 대응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대응 시스템으로 일관해 왔다.

4.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와 관용적 처벌

군 성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배경에 군 수사기관과 군사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와 솜방망이 판결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지적돼온 사실이다.

군 내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실형 선고 비율이 대한민국 전체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실형 선고 비율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인다는 점과 가해자에 대한 관대한 감경 판결이 군 내 성범죄 증가 이유 중 하나로 파악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8].

군 성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원인 중 하나로 군 내 성폭력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여론이 큰데, 2014~2016년 국내 성범죄 판결의 연도별 실형선고 비율은

2014년 18.6%, 2015년 20.4%, 2016년 22.8%로 평균 20.6%인 반면 같은 기간 군 내 성범죄 실행 신고 비율은 2014년 15.9%, 2015년 11.6%, 2016년 11.0%로 평균 12.8%에 그쳤다[26]. 이에 더해 군 내 성범죄자에 대한 판결이 재산형, 집행유예, 선고유예가 높기 때문에 교정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게 더 큰 문제로 지적된다. 이렇듯 군 성범죄에 고착화된 관용적 처벌은 군인 스스로에게도 성인지 감수성을 무디게 하는 동시에 성범죄를 증가시키는데 일조하는 결과를 도출했다.

V. 결론

언론기사의 내용분석을 통해 군 내부에 사각지대로 존재하는 성폭력의 문제점을 알 수 있었다. 구조적으로 불평등한 권력관계,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군 조직문화, 성폭력의 소극적 대처에 불신받는 군 내부 대응 시스템, 가해자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와 관용적 처벌이 국방부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로 존재하는 요인들로 나타나고 있다. 군은 성폭력을 비롯해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체적으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는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미봉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먼저, 민간 중심의 사법기관 신설이다. 경찰조직에서 시행하고 있는 범죄예방 시스템과 내부 구성원의 민간 전문가 연계를 바탕으로 군 성폭력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 기구가 시급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기존의 수사 형태 및 지시체계와는 별도로 예방체계 시스템 차원에서 군 중심이기보다는 민간 중심의 업무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관 신설이 필요하다. 불평등한 권력관계 체제하에서 아무리 좋은 예방 교육을 실시한들 성평등적 인식개선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것을 증가하는 군 성범죄 사례를 통해 충분히 경험 하였다.

둘째, 강력한 가해자 처벌이다. 처벌이 우선되고 강력해야 하는 이유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피해자와 유족들의 억울함을 보상하는 것이며, 성폭력을 중대한 사회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과 민간에서의 유사사례 분석을 통한 양형기준을 적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강력한 군형법을 피해 일반형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된 법 적용에 대해서는 해당 군검사 및 군판사에 대해서 징계 조치를 실시하고 봐주기식 형량 선고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등을 강화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8]. 셋째, 제한적 연금 지급과 계급 강등이다. 형사적 처벌과 더불어 군인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경제적 처벌과 상하관계가 명확한 군문화에서 '계급 강등'과 같은 명예적 처벌도 강력한 가해자 처벌의 수단으로 수반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의 군대는 징병제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한국 남자라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필해야 하며 병역기피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엄격한 사회적 낙인을 찍는다. 그만큼 한국의 군은 의무와 책임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특권을 부여함으로써 애정과 관심을 쏟게 되는 대상이다. 이제 군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군 성폭력 키워드를 중심으로 관련 기사를 수집하여 4개 영역으로 범주화하였으나, 관점에 따라 구분기준이 다를 수 있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여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References

- [1] Woo-cheol Jeon, Jin-suk Kim, "Effects of sexual violence offenders course instruction program,"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7, No. 4, pp.363-368, 2021. doi: 10.17703/JCCT. 2021.7.4.363.
- [2] Won-geun Gu,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Crime Prevention Environmental Design(CPTED) to Prevent Deviance in the Army: Focusing on Suicide, Violence, and Sexual Violence," Ph.D. The Graduate School Yongin University, 2021.
- [3] Seo-yeon Jo, "Crying out for female soldiers lives in the field of male-dominated military: Pi Woo-jin, female soldiers do not like chocolate," *Journal of feminist theories and practices*, 37, pp. 285-297, 2017.
- [4] Gold, N. & Auslander, G, Newspaper coverage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Canada and Israel: An international comparison. *Disability & Society*, 14(6), pp. 09-31. Doi:10.1080/09687599925858.
- [5] Keller, C. E., Hallahan, D. P., McShane, E. A., Crowley, E. P., & Blandford, B. J. The coverag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American newspapers.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24(3), 271-282., 1990.

- [6] Hye-suk Ha, "Analysis of the Effect of Negative Emotions on Sexual Harassment Prevention Education in Universities," *Asian Journal of Education*, 11(1), pp. 25-43, 2010.
- [7] Ki-Hwa Son, A Study on Military Sexual Violence," Ph.D. The Graduate School Dongguk University, 2012.
- [8] Hee-gyun Park, Jong-seung Park, "A Study on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of Sexual Assault in the Korean Military-Focusing on US SAPRO," *Journal of the Korean Public Security Association*, vol.27, No.3, 71:181-214, 2018. doi: 10.21181/KJPC.2018.27.3.181.
- [9] Department of Defense(DoD), 2007, "The SAPR source: The defense resource on sexual assault prevention and response".
- [10] Jin Min, "An identification and Analysis on the Military Organization's Culture," *Korean Journal of Histology*, 8(3): 91-121, 2011. doi:10.21484/kros.2011.8.3.91.
- [11] Bo-ram Nam, "Patriarchy, the military, and working culture," *Defense and Technology* (475): 142-143, 2018.
- [12] Min-Je Yoon, "Sociological Study on Military Culture and Military Civil Service Formation in Korean Society,"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Korean Sociological Conference II:1113-1128, 2007.
- [13] Dong-Kwang Seo, Jung-Hee Ha, "A Qualitative Study on the Experiences of Soldiers Who Experienced Sexual Violence in the Military," *Journal of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32(1):89-116, doi:10.23844/kjcp.2020.02.32.1.89.
- [14] 2016a "Defense White Paper,"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2016.
- [15]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Recommendation for Policy and System Improvement for Eradication of Sexual Violence in the Military," 2017.
- [16] Seung-beom Park, "A Study on the Organizational Effects of Servant Leadership in the Marine Corps," Ph.D. The Graduate Seoul Venture University, 2014.
- [17] Herbert, Melissa S, "Camouflage Isn't Only for Combat: Gender, Sexuality, and Women in the Military," New York University Press, 1998.
- [18] Scarce Michael, Male on Male Rape: The hidden toll of stigma and shame, Plenum Press, 1997.
- [19] Dunivin, K. O, "Military culture: Change and continuity," *Armed Forces & Society*, 20(4), pp. 531-547, 1994.
- [20] Kanter, R. M., Men and Women of the Corporation, New York: Basic Books. 1977.
- [21] Grossman, M & Wood, W. Sex differences in intensity of emotional experience: a social role interpret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65. No.5, pp, 1010-1022, 1993.
- [22] Campbell, B., Schellenberg, E. G., & Senn, C. Y., "Evaluating measures of contemporary sexism,"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1, pp. 89-102. 1997.
- [23] Hyun-mook Choi, "A Study on the Effect of Military Leaders' Emotional Intelligence on Subordinates'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Ph.D. The Graduate School Kyungwon University. 2012.
- [24] Bong-su Shin, "A Study on Effects of Servant Leadership,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Transactional Leadership on Military Organization Effectiveness," Ph.D.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2015.
- [25] Dong-wook Kang, A Critical Study on the Right to Take Actions to Confirm Judicial Officers in Military Judicial Procedures, *Korean Association for Legal Policy*, 12(1), pp.91-114., 2012.
- [26] <https://news.zum.com/articles/68564626>